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31
----------	-------

발의연월일 : 2026. 3. 30.

발 의 자 : 이해민 · 김준형 · 강경숙
박은정 · 차규근 · 서왕진
신장식 · 황운하 · 강준현
이학영 · 이정문 · 김주영
최혁진 · 김태선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 무고용률 3.1%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이 고용하는 것이 고용하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 되지 않아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을 하려 한다는 입법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도 고려하여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법률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0”을 “100”으로, “비율)”을 “비율) 및 사업장 규모(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③ ----- ----- ----- ----- ----- <u>100</u> ----- ----- ----- ----- -----비율) 및 <u>사업장 규모(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u> ----- -----. ----- -----.
1. ~ 3.(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	----------------